허술한 문화재 방재 시스템

중 예산 타령에 무너진 공조체계

‘대책’만 세우다 ‘대응’은 하세월

목조 문화재 40곳 소화설비 전혀 없어
업무 분담도 어정쩡…형식적 관리 그쳐

광주·전남지역 국보 및 보물급 목조 문화재가 관계 당국의 예산 타령과 의사 소통 부재 속에 멍들고 있다. 특히 지난 2005년 강원도 양양군 낙산사 동종이 소실되면서 화재 위험이 부각돼 대책을 세웠으나 무용지물에 그치는 등 방재시스템에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시·도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 당국으로부터 정기적인 소방안전 점검을 받는 목조문화재는 325개에 달하며 이 중 전남 지역에는 구례 화엄사 각황전 등 국보급 5개와 보물급 9개를 포함한 303개, 광주 지역에는 증심사와 춘설헌 등 22개의 문화재가 있다.

하지만 목조 문화재 325개 중 12.5%인 40곳에는 예산 부족으로 소화전 등 소화설비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다. 지난해 시·도 국가지정 문화재 소화설비 설치예산(국비 70%, 시·도 15% 등)은 모두 7억3천만원으로 지난 2005년 6억7천만원에 비해 8.2% 늘었을 뿐이다.

소화전 1곳당 설치비용이 1억원 이상 드는 것에 비해 소화설비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이 때문에 방수총이나 수막설비 등 첨단시설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소화기(3.3kg) 비치나 옥외소화전을 설치한 게 전부다. 예산 타령 속에 중요 문화재가 화재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 셈이다.

문화재 관리 업무 분담 문제도 허점으로 지적됐다. 문화재보호법상 국가문화재는 자치단체가 1차 관리를 맡고 문화재청이 감독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가 문화재 관련 인식과 전문인력이 부족한데도 문화재청은 형식적인 관리 감독을 하는 데 그치고 있다.

특히 숭례문 붕괴 이전에도 순천 송광사, 광주 대원정사 등에서 일어난 화재로 심각한 훼손을 입은 문화재가 적지 않다. 그러나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해야한다는 원칙과 규정 미비로 인해 방재 관리는 오히려 일반 건물보다도 취약한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현재 문화재보호법에는 제88조(화재예방 등) 문화재 소방설비 설치 등이 규정돼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은 없이 ‘문화재에 소방시설을 구축해야 한다’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시설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돼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목조 문화재의 경우 화재에 약한 데다 훼손을 우려해 일반 건물과 달리 적극적인 진화를 하기 어려워 화재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숭례문 화재에서 보듯 ‘문화재 재난 대응 매뉴얼’ 제정과 소화설비 예산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숭례문 전소 사건으로 전국 목조문화재 안전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광주시와 시 소방당국 관계자들이 12일 광주시 무등산 증심사에서 사찰 소방 설비 등을 점검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과속단속 사진 누락’ 고의냐 결함이냐 광주경찰청 조사 착수

일선 경찰서의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에 찍힌 사진 일부가 지방경찰청에 전송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고의 삭제’와 ‘기계적 결함’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과속단속 기록 삭제 의혹이 일고 있는 광산경찰서의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 2대의 하드디스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촬영된 위반차량 사진 1천776장 가운데 49장(2.7%)이 지방청에 전송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누락된 사진들은 여러 대의 차량이 동시에 찍혔거나 번호판이 흐리게 나오는 등 판독불가로 분류돼 폐기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분류됐을 사진 49장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면하게 된 셈이다.

경찰은 이에 대해 “이들 사진이 모두 단속반원들이 고의로 전송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며 “카메라에 내장된 프로그램 간 충돌이나 바이러스 프로그램 감염 등 기계적 결함이 원인일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문제가 된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 2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정밀감식을 의뢰하는 한편 해당 경찰서 관계자를 소환해 고의적인 ‘봐주기’ 여부를 따지는 등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 젠틀맨비뇨기과의원
www.urocare.co.kr
전립선 비대증-KTP 레이저
신장·요관결석-충격파 쇄석기
남성수술크리닉, 여성 요실금 수술
상담전화 (062)233-5119
광주 상무지구 롯데리아 건너편 미연빌딩 3층

서울 중위권 대학 등록률 낮아져

등급제 영향 재수생 늘 듯

전남대 82.8%·조선대 81.9%

지난 11일 4년제 대학들이 2008학년도 정시모집 전형 합격자 1차 등록을 마감한 결과 서울 상위권 대학과 지역 대학은 등록률에 큰 변화가 없으나 서울 중위권 대학은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는 등록 대상인원 3천282명 가운데 3천150명이 등록을 마쳐 96.0%의 등록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94.5%보다 1.5% 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연세대 서울캠퍼스는 72.0%(1천980명 중 1천425명 등록), 고려대 안암캠퍼스는 80.7%(2천565명 중 2천67명)의 등록률을 보였다.

반면, 한양대는 2천477명 가운데 1천996명이 등록, 80.6%의 등록률을 기록해 87.1%를 기록한 지난해보다 6.5% 포인트나 낮아졌으며, 숙명여대도 78.2%(1천428명 중 1천117명 등록)로 지난해 85.6%에 비해 7% 포인트 이상 감소했다. 이들 학교 측은 “등급제 영향으로 재수를 선택하는 학생이 늘어 등록률이 낮아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남대는 합격자 5천136명 중 4천252명이 등록해 최초등록률 82.8%로 지난해 84.2%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광주캠퍼스는 82.2%, 여수캠퍼스는 85.0%였다. 조선대의 최초등록률은 81.9%(5천156명 중 4천220명 등록)을 기록해 지난해 82.2%보다 다소 낮아졌다.

광주대는 등록 대상 1천527명 중 1천349명이 등록해 88.3%, 호남대는 1천888명 중 1천560명이 등록해 82.6%의 등록률을 보였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주요대학 합격자 최초 등록률(%)

학 교	2008년	2007년
서울대	96.0	94.5
연세대(일반)	70.6	70.0
고려대	80.7	69.5
전남대	82.8	84.2
조선대	81.9	82.2
광주대	88.3	80.0
호남대	82.6	86.4
광주여대	89.3	87.0
순천대	74.3	75.5
목포대	76.2	75.7
동신대	79.4	70.4

“칭얼댄다” 딸 살해 ‘비정의 엄마’ 영장

광주북부경찰은 12일 2살된 딸을 살해한 신모(여·20·북구 운암동)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새벽 3시께 광주시 북구 운암동 자신의 집에서 딸인 이모(2)양이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대자 수 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이양은 범행 당일 새벽 일을 마치고 돌아온 아버지에게 발견돼 광주 J대 병원으로 옮겨져 한 달 이상 치료를 받아오던 중 지난달 22일 뇌부종으로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은 당초 신씨를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입건했으나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해 이날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신씨는 남편과 1년 전 결혼한 뒤 첫 딸을 낳았으며 이후 우울증에 시달려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보조금 받아 편취 해남군의원 구속

광주지검 해남지청(지청장 양부남)은 12일 허위서류를 작성해 군 보조사업자금을 지원받은 뒤 이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해남군의원 이모(51)씨에 대해 보조금의 예산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4년부터 2005년까지 공사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작성, 해남군에 제출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자금 8억3천955만원을 지원받아 이 중 1억8천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횡령한 돈 가운데 9천500만원을 자신의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9천만원은 회사경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나원참 〈7430〉 김종두

다 층은 건축·산업자재 KCC
(주)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시시 제작 및 상담환영
▶서울본사 : 02) 3445-0943
▶나주공장 : 061) 337-0571

만취 40대, 경찰차 파손 화풀이

쌍나팔

○…만취 상태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를 놓고 말다툼 끝에 경찰서를 찾은 40대 남성이 주차장에 세워진 직원 차에 괜한 화풀이를 하다 경찰에 입건.

○…광주북부경찰은 12일 경찰서 내 주차장에 있던 차량을 파손한 이모(48·남구 월산동)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0일 새벽 1시30분께 광주시 북구 오치동 광주북부경찰 주차장에서 교통사고 조사계 직원 장모 경위의 소나타 승용차 등 차량 두 대를 발로 차 파손했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때마침 현장을 지다던 형사과 직원들에게 현행범으로 붙잡혔는데, 경찰에서 “요금을 주려고 했는데, 택시기사가 계속해서 따지자 화가 났었다”고 진술.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